

중국어사와 국어사의 융합연구*

- 근대중국어 어휘의 전파를 중심으로 -

강 용 중**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근대중국어 어휘가 우리 |
| II. 중국어사 기술에서 한국한자어
처리 방식 | 한자어로 전파되는 과정 예시 |
| III. 국어사 연구에서 한자어 처리
및 중국어사 참고 방식 | 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중국과의 오랜 교류에서 언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중국어사의 연구 성과와 한국어사의 연구 성과를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두 언어의 발전사 및 언어접촉 과정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계림유사》나 《조선관악어》를 활용한 중국음 및 한국어 고유어 연구, 《노걸대》나 《박통사》 등 회화류 역학서를 활용한 중국음 연구 등에 국한된 현상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 (편집위원회 주) 저자이신 강용중 선생님께 부득이한 사정(논문의 수정기간 중 작고)이 생긴 탓에, 부인 성기은 선생님 및 여러분들께서 본 논문을 매조지해 주셨습니다. 저희 편집위원회에서는 성기은 선생님을 대신하여 본 논문이 탈고 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사와 한국어사 간 융합연구의 시도로서, 근대중국어 어휘가 우리 한자어로 전파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해석하여 향후 언어대조연구, 언어접촉이론, 수용이론과 모델 등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우리가 쓰는 한국한자어 중 중국의 근대중국어 시기에 출현한 어휘를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추출하고 이들 어휘가 전파된 경로, 시점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중국어사와 한국어사 연구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융합연구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한자어의 통시적 이해를 통해 각 한자어의 기원과 전파, 의미의 파생에 이르기까지 어휘학 연구의 입체적 분석틀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한자(어)교육에서도 이러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가 많지 않아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유입 방식 및 통시적 사례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어사 기술에서 한국한자어 처리 방식

중국어사 연구에서 한국 한자어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다룬 저작은 많지 않다.

王力의 《漢語史稿》(1996[1958], 593-598)에서는 그나마 중국과의 교류에서 그 영향을 받은 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다. 제1기를 鄉札時期로 설정하고, 서기 5세기경 우리 문자가 없었던 초기, 한자를 활용해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을 개발해 사용했다고 했다. 제2기는 吏讀時期로 실사의 경우 한자어(중국어)로 허사는 우리말로 기록하게 되었으며 대략 7세기부터 시작된다. 제3기는 口訣時期로 한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문 원전의 단락 사이에 句讀나 우리말 허사를 삽입하여 직독하는 방식인 구결이 출현했다. 대략 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다. 王力은 이러한 전개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어와 한문(원문에서는 ‘漢字’라 함) 사이에 아주 복잡한 관계

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한자 자형과 음, 의 관계에 따라 여섯 가지 상황을 설정하였다.

- ① 借音; ② 借訓; ③ 借詞義; ④ 借訓兼借音; ⑤ 借訓, 併用漢字表示尾音; ⑥ 借詞

국어사의 긴 기간으로 보자면 ①~⑤의 구체적인 면모를 알아야 하고, 현대 국어나 전체 한자어 문제 전반에서 보자면 ⑥의 借詞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나 더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서술은 한글창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漢語史稿》가 집필된 시기인 50년대 상황에 걸맞게 북한의 한자어 사용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漢語史稿》의 우리 한자어 서술은 너무 개괄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구 상황에 적합한 내용은 많지 않다.

다음으로 向熹의 《簡明漢語史(下)》(1993[1998], 542-545)에서도 《漢語史稿》와 마찬가지로 결론에 “漢語光輝的歷史和偉大的前程”라는 절에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일본 한국 월남 등에서 한자와 한자어를 받아들인 상황을 개술하고 있다. 북한의 한글전용 정책과 한자어 사용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2010년 발행된 《簡明漢語史(修訂本)》(2010, 商務印書館)에서는 여타 ‘한자문화권’ 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마저도 삭제했다.

이밖에도 중국어 역사어휘 전공자인 蔣紹愚(2015)의 《漢語歷史詞彙學概要》, 方一新(2010)의 《中古近代漢語詞彙學》, 王雲路(2010)의 《中古漢語詞彙史》 등에서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의 한자어 전파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이상의 저작들은 중국어사 연구의 전문 서적들이므로 ‘域外’ 전파에 대해 언급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중국어사 전공자들의 전반적인 태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한자어에 대한 관심은 재중교포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¹⁾,

최근에는 한국어 교수나 중국어 교수에서 雙語 대조연구가 활발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 전반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대량 처리나 언어접촉, 한자문명의 전파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전개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Ⅲ. 국어사 연구에서 한자어 처리 및 중국어사 참고 방식

국어사 연구에서 한자어의 처리는 난제 중의 난제에 속한다. 사실 국어 어휘사 연구에서 양대 과제는 고유어의 처리와 한자어의 처리이다. 고유어의 처리에서는 주로 한글 창제 이후 현전하는 자료를 다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귀납해야 한다. 그러나 순 한글 어휘의 처리에 있어, 언해류, 필기류, 문학작품 등이 비록 세종계획²⁾의 수행에 따라 대량의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斷代別 및 통시 고어사전이 출간되었으나, 특정 텍스트 언어사전(중국어로 專書語言詞典이라 함)은 아직도 연구의 大宗을 이루지 못해 향후의 작업이 더 많이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많은 텍스트들이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고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한자어와 순 한글 어휘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연구의 난이도를 더하고 있다.

우선 한자어 처리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국어어휘사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민현식(1995, 363)을 참조하기로 하자.

- ▲ 원시국어 어휘: ~BC 2C(원시 부족국가 시대). 1원 체계기(고유어기)
- ▲ 전기 고대국어 어휘: ~7C(삼국시대). 2원 체계 형성기(고유어·한자어)
- ▲ 후기 고대국어 어휘: 7C~9C(통일신라·발해시대). 2원 체계 확장기(고유

-
- 1) 리득춘, 《조선어 어휘사》, 박이정, 1996[연변대학출판사, 1897] 참조.
 - 2) ‘21세기 세종계획’은 우리나라의 언어·문화 발전을 기하고,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며,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국어정보화 중장기 사업으로 10년 간(1998~2007년)의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어·한자어)

- ▲ 전기 중세국어 어휘: 10C~13C(~고려 중기). 3원 체계 형성기(몽고어 차용기)
- ▲ 후기 중세국어 어휘: 14C~16C(고려후기~조선 전기). 3원 체계 안정기
- ▲ 근대국어 어휘: 17C~1876(조선후기). 3원 체계 확장기
- ▲ 개화기 국어 어휘: 1876~1910(개항기). 3원 체계 변혁기(일본계 한자어·서구 외래어 도입기)
- ▲ 전기 현대국어 어휘: ~1945(일제 침략기). 다원 체계 형성기(일본계 한자어·서구 외래어 점증기)
- ▲ 후기 현대국어 어휘: ~현재(분단기). 다원 체계 확장기(일본계 한자어·서구 외래어 확장기)

학자에 따라 시기 구분법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위의 자료를 인용하며, 이 중 한자어가 개입되는 각 시기를 주목하자. 전기 고대국어 시기에 고유어와 한자어의 2원 체계가 형성되고, 후기 고대국어 시기에는 드디어 주요 개념 표현에 한자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2원 체계가 확정되기에 이른다. 후기 중세국어 이후에는 특히 성리학파 과거제, 지식인층의 대두로 한자로 된 고문을 서면어로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 폭증하면서 한자어의 우세기에 진입한다. 현대 국어의 한자어와 직결되는 가장 최근의 변화는 바로 개화기 이후 일본을 통해 전래된 일본계 한자어의 확장이다.³⁾

이상의 간략한 소개에 따르면 한자어는 국어사 특히 국어어휘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한국한자어를 다루는 학과로는 국어학, 한문학, 중국어학⁴⁾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주도

-
- 3) 국어 어휘사 시기 구분이 아닌 한자어 수용에 관한 통시적 개괄로는 심재기, <한자어 수용에 관한 통시적 연구>(《국어어휘론신강》, 태학사, 2000) 참조.
 - 4) 중국어학 연구자 중 한국한자어 연구 성과로는 황신애, <한중 한자 비교를 통한 한국 한자어의 통시적 의미고찰-형태소 한자를 중심으로>(《중국문학연구》 제53집, 2013)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는 중국어에는 없는 단음절 한국 한자어 용법을 일부 모아 소개했다.

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과는 국어학이다. 해방 후 초기에 가장 뛰어난 성과로는 아래의 세 저술이 있다.

심재기, 〈國語 語義變化의 구조적 연구〉, 《국어연구》 11호, 1964.

李庸周, 《韓國漢字語에 관한 研究》, 三英社, 1974.

金光海,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국어학회, 1989.

심재기(1964)에서는 국어 어휘의 변천을 한자어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미변화의 구조적 분류에서는 원인, 계기, 결과로 나누어 서술하고, 국어(한자어)의 語義變化를 언어의 보수성에 의한 변화, 의미간의 相似에 의한 변화, 의미간의 近接에 의한 변화, 語音間的 相似에 의한 변화, 語音間的 近接에 의한 변화 및 語音과 의미의 복합관계에 의한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李庸周(1974)에서는 품사별 분포, 빈도별 분포, 조어요소별 분포 등을 유형적으로 분석하고, 각론으로 1) 同綴語⁵⁾ 형성 상의 기능, 2) 의미체계 형성 상의 기능(동사, 형용사, 명사) 등을 다루었다.

金光海(1989)에서는 前作 《類義語·反意語 辭典》(도서출판 한샘, 1987)의 연구 성과에 기초해 고유어 대 한자어의 一對多 대응 현상을 밝혔다. 특히 1.4 선행연구(5쪽)에서는 심재기(1964)와 李庸周(1974)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三人이 공히 고유어 대 한자어의 一對多 대응 현상을 관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마도 이 관찰은 해방 이후 한자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이견이 없는’ 이론적 돌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재기(1964)에서는 ‘고유어 하나에는 대체로 여러 개의 同意語群과 대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유어는 주로 개념적으로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의미만을 가지는데 한자어는 ……한정적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그 예로는 아래가 있다.⁶⁾

5) 李庸周(1974; 52)에 따르면 同綴語란 “한글로 표기한 자모와 그 배열순서가 동일한 둘 이상의 語”를 가리킨다.

생각: 思考, 思惟, 思索, 想像, 推想, 豫想, 冥想, 回想, 空想, 雜念……
 뜻: 意味, 意義, 定義, 意志, 意欲, 欲求, ……
 사랑: 愛情, 戀愛, 戀心, 戀情, 戀事, ……
 싸움: 戰爭, 戰鬪, 論爭, 競爭, 競技, ……
 셈: 計算, 換算, 推算, 計量, ……
 옳은: 正當, 正理, 穩當, 至當 ……

金光海(1989)에 따르면 ‘一對多 대응’이라는 술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는 李庸周(1974)에서이다. 어휘의미론을 활용해 한자어를 다룬 당시에 거의 유일한 성과였던 李庸周(1974)에서 동사가 일반적으로 움직임만 표시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들이 각각 대인동작, 대물동작, 과거, 지각, 심적 현상, 상태, 관계, 運動·과정의 결여, 능동 표현의 피동, 사역, 시·공간적 환경, 자극과 반응, 필연과 우연 등의 지시대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정밀화했다.⁷⁾

이러한 개괄에 이어 金光海(1989)에서는 ‘一對多 대응’의 양상, 국어 어휘부의 구조와 ‘一對多 대응’ 현상, 고유어와 한자어의 위상으로 확장하기에 이른다. 이 연구의 결실이 바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와 (주) 낱말 어휘처리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총 7권, 6천 625쪽 분량의 10만 개에 달하는 표제어를 수록한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도서출판 낱말)이다. 이 성과는 중국과 일본에도 아직 나오지 않은, 한자어가 최대한 반영된 대형 유의어 사전이다.⁸⁾ 위 三人의 연구가 이렇듯 50년 만에 큰 결실을 보게 된 것은 국어사 혹은 한국 한자어 연구에 주요한 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⁹⁾

2기 한자어 연구의 성과로는 우선 박영섭(1995)의 《國語漢字語彙論》

6) 金光海(1989)에서 재인용.

7) 상동.

8) <https://semtle.natmal.com/> 참조.

9) 국어어휘사와 관련해 이기문, 《國語語彙史研究》(동아출판사, 1991)와 유창순, 《語彙史研究》(이우출판사, 1980)가 더 있지만 추후에 소개하기로 한다.

(박이정)이다. 이 책에서는 제1부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전래와 수용을 필두로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를 1) 중국어 文語系 한자어, 2) 불교어계 한자어, 3) 중국 白話系 한자어, 4) 일본어계 한자어, 5) 한국 한자어 등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제2부에서는 개화기 국어 교과서와 현용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한자 어휘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제1부의 각론에서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기원적 계보라는 한자어 자체에 서로 다른 이질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측면은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노명희(2005)의 《현대국어 한자 연구》(국어학회)이다. 이 책은 공시 평면에서 한자어의 단어 구조를 연구하였다. 한자어의 기능단위의 유형을 의존형식, 자립형식, 제한적 자립형식으로 구분하였고, 접사성 한자어를 접두, 접미로 구분하여 단어 구조를 字 단위로 소상히 분석했다. 이 저작은 비록 국어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연구방법은 통시 평면에 바로 적용 가능하므로 한국 한자어 연구에 유익할 것이라 판단한다.

이밖에도 뛰어난 학술논문이나 ‘한자어’를 주제로 하는 2,000여 편의 학위논문이 있지만, 여전히 공부 중이라 차체에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장의 마지막 화두인 국어사 연구의 중국어사 참고 방식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민(2013) <한자어에 대한 어휘사적 조명>에서는 한자어회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국어회사에 대한 기본지식이라 할 수 있다”며 王力(1996), 方一新(2010), 王雲路(2010) 등의 연구 성과에 기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어학자들 중 이러한 저작 혹은 방대한 양의 중국어회사 연구 성과를 제대로 소화하고 도입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도출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 성운학이나 문자학, 문법학에서와 다른 이런 연구 방식은 일신되어야 한다.

IV. 근대중국어 어휘가 우리 한자어로 전파되는 과정 예시

근대중국어는 唐五代부터 《紅樓夢》이 출현한 청 중기까지의 중국어 역사시기 중 하나이다. 서한까지를 고대중국어, 동한에서 수나라까지를 중고중국어라 한다.¹⁰⁾

앞서 소개한 민현식(1995)의 구분법에 따르면 후기 고대국어 어휘(7~9C)시기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 근대중국어 어휘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계기와 시기는 당연히 신유학(성리학)의 성립과 그에 따른 宋儒語錄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

그 이전에 《高麗史》의 일부나 元刊 《老乞大》 등이 비록 근대중국어로 기록되었지만 조선시대 宋儒語錄이 전래하고 확산된 것에는 비길 바가 아니다.

당시 수입된 宋儒語錄은 《朱子語類》, 《朱子文集》, 《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 《心經附註》 등으로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절대 다수 한문 사용자들의 필독교재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적들은 간접 언어접촉의 중요한 매개였으며, 문언에 익숙한 조선의 유생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에 주석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바로 《語錄解》이다. 퇴계 이황이나 미암 유희춘 등이 어록에 주석한 것을 鄭養 南二星 등이 출간한 《語錄解》는 무수한 필사본이 전해지며, 20세기 초반까지 飜刻되기에 이른다. 《語錄解》의 語錄은 宋儒語錄이라는 함의 외에도 中國語 口語라는 의미가 있다. 즉 《語錄解》란 宋儒語錄에 보이는 口語를 풀이한 사전인 것이다. 당시 문언 서면어에만 익숙하던 유생들이 새로운 語體로 기록된 어록을 읽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들은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언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으리라. 아래는 필자(1996)의 기존연구에서 밝힌 《語錄解》 표제어 중 현대 국어에 쓰이는 한자어를 제시한 것이다.

10)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17. 참조.

許多, 渾身, 決定, 方便, 自由, 涵養, 商量, 消詳, 安置, 安着, 畢竟, 從來, 打破, 大小, 多少, 穿鑿, 批判, 主張, 仔細, 着着, 激昂, 知覺, 裏面, 容易, 十分, 一般, 張皇, 霎時, 箇中, 國是, 骨子, 行間, 合當, 合作, 話頭, 外間, 零細, 淘汰, 根底, 摸搽, 由來, 報道, 眼下, 等閑, 太極, 除外, 除去, 從前, 骨董, 提起, 下落, 點檢, 所有, 照會, 形而上, 形而下, 橫說豎說(총 57개)

다만 이들 중 語錄에서 쓰인 ‘決定’은 ‘一定’의 의미로 副詞이고, ‘批判’은 공문서에 쓰인 용어로 ‘公事結尾’의 뜻이다. 나중에 의미가 바뀌어 ‘결정’과 ‘결정하다’, ‘비판’과 ‘비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 ‘所有’도 마찬가지로 吏文으로 쓰이고 있으나 현대의 우리말에서는 동사나 명사로 쓰인다. ‘張皇’은 《語錄解》에 ‘章皇’으로도 나와 있으며 같은 의미의 疊韻語임을 알 수 있다. ‘摸搽’을 현대에는 ‘摸索’으로 쓴다. 그리고 ‘眼下’는 ‘無人’과 결합하여 成語로 쓰이고 있다. ‘骨董’은 3자류에 보이는 ‘閑汨董’에서 ‘汨董’과 같다. 즉 ‘骨’은 ‘汨’과 同音으로 같은 것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3자류 이상에도 보인다. ‘甚工夫’, ‘甚生氣質’, ‘冷淡生活’, ‘看做甚麼事’, ‘會去分別取舍’에서 각각 ‘工夫’, ‘氣質’, ‘冷淡’, ‘生活’, ‘看做’, ‘分別’, ‘取舍(捨)’ 등이 모두 현대의 우리말에 쓰이고 있는 어휘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어휘 중 1자류의 157개를 제외한 2자류 이상의 709개 표제어에서 8.8%가 현대의 우리말에 전승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중국에서의 어휘변화(여기서는 복음절화를 말함)가 그 영향권에 놓인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¹⁾

필자의 향후 연구 구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한자어에 대한 근대중국어 어휘의 영향이므로, 범위를 확대하여 근대중국어 어휘 연구 성과를 추적하고 이를 한국한자어와 대비하여 1)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2)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3) 한국한자어 중 중국계 한자어의 통시적 층차를 구분 짓는 것 등이 주요 작업이 된다.

다음으로 하나의 예시로 결합이 자유로운 형태소 글자 ‘村’을 소개하고

11) 강용중(1996, 118-119)에서 인용.

자 한다. 우리말 ‘촌놈’, ‘촌스럽다’ 등에서 ‘촌’은 한자로 ‘村’이다. 李敏辭(1998, 103)에 따르면 송대에 이미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都農間 차이가 커져 어휘 색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 ‘村’이 속되고 촌스럽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했다. ‘村人’을 예로 들면, 唐代 白居易 《登村東古塚》詩: “村人不愛花, 多種栗與棗。”(시골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기 보다는 밤과 대추나무를 많이 심는다.)라 하여 중성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나, 《朱子語類》卷三五: “所謂君子者, 豈是斂手束腳底村人耶?”(군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촌놈처럼 하겠는가?)라고 하여 貶義로 사용하고 있다. 《漢語大詞典》의 ‘村’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제어들이 이러한 용례에 해당한다.¹²⁾

- 【村妓】粗鄙之妓. 唐白居易《酬思黯相公見過弊居戲贈》詩
- 【村氣】俗氣. 唐劉餗《隋唐嘉話》卷中
- 【村性】粗暴的脾氣. 明張四維《雙烈記·推詳》
- 【村煞】猶言急壞, 忙壞. 元吳西逸《壽陽曲·四時》曲
- 【村殺】謂極其粗俗. 明高明《琵琶記·官媒議婚》
- 【村勢煞】猶村樣兒. 明賈仲名《對玉梳》第二折
- 【村夫】2.粗俗的人. 元周文質《斗鶴鶩·詠小卿》套曲.
- 【村夫子】鄉村的學者. 多指村學究. 宋劉攽《貢父詩話》卷四
- 【村夫俗子】粗俗人. 清李漁《風箏誤·鶴誤》
- 【村牛】蠢牛. 對文盲的貶稱. 《醒世恒言·賣油郎獨占花魁》
- 【村末】粗俗的末角. 元雁玄明《耍孩兒·詠鼓》套曲
- 【村田眼】鄙俗的眼光. 宋吳曾《能改齋漫錄·記詩一》
- 【村囚】詈詞. 猶言壞東西. 《醒世姻緣傳》第七三回
- 【村老子】2.詈詞. 粗俗的老頭子. 元關漢卿《竇娥冤》第一折
- 【村行】愚蠢行事. 《醒世姻緣傳》第八四回
- 【村村】詈詞. 蠢材. 元嶽伯川《鐵拐李》第四折
- 【村伴姐】粗俗的女仆. 元薛昂夫《端正好·高隱》套曲

12) 논문의 분량 문제로 전체 분량의 1/3을 해당 의미항과 시대를 판별할 수 있는 문헌 출처만 수록함.

- 【村言】粗俗的話。《紅樓夢》第一回
- 【村弟子孩兒】詈語。猶言壞小子。元關漢卿《魯齋郎》第一折
- 【村沙】亦作“村桑”。1.粗鄙，僞俗。金無名氏《劉知遠傳》十一
- 【村沙段】謂相貌丑陋。金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七
- 【村壯】粗壯。《醒世姻緣傳》第七三回
- 【村妝】粗俗的打扮，借指粗俗的女子。清李漁《蜃中樓·述異》
- 【村俠】粗俗的小廝。元曾瑞《紅繡鞋·風情》曲
- 【村拗】粗鄙違拗。宋劉克莊《水龍吟·丁巳生日》詞
- 【村杭子】詈詞。猶言壞家伙，壞蛋。《醒世姻緣傳》第七七回
- 【村服】粗陋的衣服。宋李觀《竹齋題事》詩
- 【村怪】山野精怪。《西遊記》第七十回
- 【村郎】粗俗的人。《古今小說·陳御史巧勘金釵鈿》
- 【村陋】粗俗淺陋。宋胡仔《苕溪漁隱叢話前集·杜少陵五》
- 【村姑】2.粗野的女子。《清平山堂話本·快嘴李翠蓮記》
- 【村俗】粗俗。明王九思《滾繡球·秋興》套曲
- 【村鬼】詈詞。猶丑鬼、惡鬼。宋黃庭堅《鼓笛令·戲詠打搨》詞
- 【村眉】粗眉。借指俗人。有時用為謙詞。明袁宏道《夜話春草堂限韻》之三
- 【村紉】亦作“村青”。粗俗，粗野。元周文質《斗鶴鶩·詠小卿》套曲
- 【村莽蕪】粗野魯莽。元高文秀《遇上皇》第一折
- 【村虔】猶粗俗。元王擘《水仙子·招》曲
- 【村拳】狠拳，惡拳。清孔尚任《桃花扇·逃難》
- 【村姬】1.粗俗的女子。清李漁《風箏誤·驚丑》
- 【村措大】舊時譏稱貧窮的讀書人。
- 【村捲】猶言惡罵。《醒世姻緣傳》第八七回
- 【村鹵】粗魯。《西遊記》第九四回
- 【村野】5.粗暴魯莽。《西遊記》第七回
- 【村鳥】舊小說中用以罵人的話。鳥，用同“屌”。《水滸傳》第十六回
- 【村貧】謂卑微貧苦。《好逑傳》第二回
- 【村粗】粗俗；粗魯。明海瑞《規土文》
- 【村村棒棒】匆忙急迫貌。元無名氏《凍蘇秦》第三折。亦省作“村棒棒”。
- 【村村勢勢】猶言土頭土腦。《水滸傳》第三三回
- 【村頭村腦】猶言土頭土腦。形容粗俗。《二十年目睹之怪現狀》第五二回

두 번째 단어 【村氣】는 ‘촌티’쯤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용례는 이미 당대에 출현했다. 첫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예이다. 그러므로 貶義의 ‘村’은 이미 당대에 출현했다. 이어지는 단어 【村性】의 ‘性’은 송대 이후 상용된 접미어이다. 나머지 【村煞】, 【村殺】, 【村勢煞】의 ‘煞’과 ‘殺’은 근대중국어 시기에 자주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접미어이다. 단순히 사람을 나타내는 ‘~人’, ‘~漢’, ‘~夫’가 아니라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접미어가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대단히 상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의 네 가지 예 【村棒棒】, 【村村棒棒】, 【村村勢勢】, 【村頭村腦】 등은 중첩형식을 취해 이미 상태형용사화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ABB, AABB는 전형적인 형용사의 중첩형이고, ‘A頭A腦’도 역시 당시 유행하던 중첩형식 중의 하나이다.

이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련 한자어를 살펴보자.

촌-스럽다(村스럽다) 활용: 촌스러워[촌:쓰러워], 촌스러우니[촌:쓰러우니].

부표제어: 촌스레

촌-놈(村놈) 「명사」 「1」 시골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촌한.

촌한2(村漢) 「명사」 시골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촌놈.

촌-년(村년) 발음[촌:년]. 「명사」 「1」 시골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2」 행동이나 외모가 촌스러운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촌-티(村티) 「명사」 시골 사람의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나 태도. =시골티, 야자, 야태.

야태(野態) 「명사」 시골 사람의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나 태도.

야자1(野姿) 「명사」 시골 사람의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양이나 태도.

확장해서 《표준국어대사전》 ‘村’자 조에 보이는 貶義의 표제어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북한
촌무(村巫)	촌사람(村~~)	촌멋쟁이(村~~~)
촌무지렁이(村~~~~)	촌색시(村~~)	촌무당(村~~)
촌것(村~)	촌샌님(村~~)	촌마우(村~~)
촌계(村鷄)	촌생원(村生員)	촌보(村~)
촌계관청(村鷄官廳)	촌서(村書)	촌보리동지(村~~同志)
촌구석(村~~)	촌스럽다(村~~~)	촌때(村~)
촌기(村妓)	촌스레(村~~)	촌령감(村令監)
촌기(村氣)	촌아이(村~~)	촌세(村勢)
촌년(村~)	촌인(村人)	촌식(村式)
촌놈(村~)	촌티(村~)	
촌답(村~)	촌학구(村學究)	
촌대기(村~~)	촌한(村漢)	
촌뜨기(村~~)		

이상에서 보듯 남북한이 다 이 형태소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村’의 이러한 용법은 근대중국어의 영향이라 판단한다.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 또한 한국한자어 연구에 도움이 된다. 역학서에는 회화류 역학서와 유해류 역학서가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譯語類解》의 ‘磁石’에 대한 우리말 한자 대역어는 ‘指南石’이다. 전문적인 자료를 찾지 않으면 당시(1690 출간) 우리말에 磁石이 없었나? 또는 指南石은 중국어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譯語類解》의 편찬방식에 따르면 표제어와 동일한 우리 한자어가 있으면 ‘| |’로 표시하므로 磁石이라는 말을 상용 한자어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 어감으로 볼 때 指南石은 중국어계 한자어로 보이지만 북경대학 코퍼스(CCL)에는 보이지 않는다. 指南魚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指南石은 우리가 조어한 ‘한국식’ 한자어가 된다.

20세기 초 한국어에서 근대중국어 어휘 사용은 어땠을까? 여기서는 현진건의 소설을 통해 사례를 들어보자. 필자는 양명희(2002, 49~49) 《현진건의 20세기 전반기 단편소설 어휘 조사》에서 근대중국어 시기에 출현한 세 어휘(境遇; 驚風; 階梯)를 선별했다. 각각 먼저 든 예는 양명희(2002)

에서 온 것이고 이어지는 것은 《漢語大詞典》에서 온 것이다.

- [1] 경우: 경우(境遇)[명] “경우가 시인을 낫는구나.”〈新聞紙와 鐵窓,5〉이 문장의 ‘경우’는 ‘때’, ‘상황’ 등으로 본다.

境遇: 境況和遭遇. 《漢語大詞典》第2卷 第1200頁

《兒女英雄傳》第三十回:「這大約總由於他心性過高, 境遇過順, 興會所到, 就未免把這輕佻一路, 誤認作風雅。」

清黃輔辰《戴經堂日鈔》:「竊某邊徼腐儒耳, 囿於方隅, 困於境遇, 浮沉郎署, 幾二十年。」

魯迅《華蓋集·北京通信》:「我們的年齡, 境遇, 都不相同, 思想的歸宿大概總不能一致的罷。」

郭澄清《大刀記》第三章:「這血印, 是普天之下的窮人苦難境遇的縮影。」

- [2] 경풍을 하다: 경풍(驚風)을 하다. “소리를 버럭 지르는 서슬에 나는 아주 경풍을 한번 하였네.” -풍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병증이라는 뜻에서 여기서는 심하게 놀라다라는 의미로 쓰임.

驚風 (驚風, 惊风)《汉语大词典》 第12卷 第888頁

1. 指猛烈、強勁的風。

漢·司馬相如《上林賦》:「然後揚節而上浮, 凌驚風, 歷駭焱。」

唐·孟郊《感懷》詩之一:「秋氣悲萬物, 驚風振長道。」

明·劉基《燕歌行》:「愁如驚風鼓春潮, 歲云暮矣山寂寥。」

2. 中醫病名。

明徐元《八義記·醫人揭榜》:「一女幽在宮中, 數月前產後驚風。」

《紅樓夢》第八四回:「妞兒一半是內熱, 一半是驚風。」

秦牧《藝海拾貝·毒物和藥》:「蝎子, 這也是夠毒的東西了。然而中醫卻用它來主治驚風抽搐, 以及瘡毒等症。」

- [3] 계제: 계제(階梯).[명] 벼실 계제가 아무리 높아도 정작 정사에는 왈가왈부 못하는 법, 그저 허위(虛位)를 지킬 뿐이라.〈선화공주(3회), 89〉 = ‘계제’는 ‘사다다리’의 뜻으로, ‘일이 되어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계제’는 ‘등급’ 정도의 의미를 보인다.

階梯: 《汉语大词典》 第11卷 第1060頁

1. 臺階, 梯子。亦指循臺階、梯子而上。
南朝·梁·何遜《七召》：「百丈杳冥以飛跨，九層鬱律以階梯。」
唐·元稹《夢上天》詩：「天悠地遠身跨風，下無階梯上無力。」
2. 比喻向上或前進的憑藉、途徑。
唐·韓愈《南內朝賀歸呈同官》詩：「法吏多少年，磨淬出角圭，將舉汝愆尤，以為己階梯。」
《古今小說·吳保安棄家贖友》：「大丈夫不能掇巍科，登上第，致身青雲，亦當如班超、傅介子，立功異域，以博富貴。若但借門第為階梯，所就豈能遠大乎？」
王闔運《論文體》：「古之名篇，乃自相襲，由近而遠，正有階梯；譬之臨書，當須池水盡墨；至其渾化，在自運耳。」

앞의 예에서 보듯 [1] 境遇는 중국어 예문의 의미와 대체로 상응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이른 용례가 청대이고 그것이 현진건의 작품에 나왔다는 것이다. [2]의 驚風은 중국어 예문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병명으로서의 驚風이 아닌 ‘심하게 놀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의 階梯도 [2]의 驚風과 마찬가지로 중국어 예문에 보이지 않는 파생용법으로 쓰였다. 위 세 가지 예들 중 두 가지가 중국어에는 없는 의미향으로 쓰인 것이다. 이들 의미향 자체로 한국한자어 용법으로 판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나 귀화어 중 일부는 우리말 내에서 파생용법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상의 예들은 근대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자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더 전면적이고 많은 양의 한자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적 개연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V. 나오는 말

한국한자어 중 중국계 한자어는 오랜 중국어 영향 속에서 그 양이 늘어났으며, 지금의 국어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언어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지

금까지의 국어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자 어휘사나 한자 어역사사전은 나오지 못했다. 박재연(2016)의 《고어대사전》(전 21책, 선문대 출판부)이나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의 《漢韓大辭典》(2008), 《한국한자어사전》(1996) 및 그간의 고어사전류, 국립국어원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한국한자어 역사사전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나온 여러 중국어 어휘사 저작이나 대형 사서를 함께 참조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으로 개방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 표제어는 28만여 개에 이르며 이들을 통시적으로 코퍼스에 기반해 정리할 때만이 우리 국어사 연구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중국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중국의 중국어사 기술에서 한국한자어 처리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에서의 중국어사 연구는 상당히 왕성한 학문 분야이자 성과 또한 아주 방대하다. 반면 한국한자어 자체에 대한 언급은 추상적이고 당위론적 입장에서 그 결과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어사 연구는 중국어의 역사 자체가 대상이므로 중국 이외 지역 또는 국가의 전과 이후의 한자어는 주된 관심 영역일 리가 없는 것이다. 반면 한국 한자어 연구에서 중국어사 특히 중국어 어휘사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래되기 이전에 중국에서 발생하고 사용 과정을 통해 변화해온 해당 어휘는 전래 이후 한자어로 보자면 前史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한자어 연구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규정성이 있다 하겠다.

3장 국어사 연구에서 한자어 처리 및 중국어사 참고 방식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한자어 연구의 주요한 맥락을 살폈다. 한자의 유입의 시기 구분부터 이론적 토론까지 많은 성과들이 있었으며 한자어의 구성 원리나 파생관계까지 이론적인 기반이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중국어사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지는 주장까지는 있었으나 더 진전된 또는 실제적인 융합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도 확인했다.

4장 근대중국어 어휘가 우리 한자어로 전파되는 과정 예시에서는 송유어록, 형태소 村, 유해류 역학서, 20세기 초의 근대중국어 어휘 사용 사례

를 통해 다양한 시대에 근대중국어 어휘가 수용되어 사용된 일련의 특징을 살폈다. 분석을 통해 흥미롭고 특이한 어휘 파생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분야와 자료를 더 확충한다면 보다 많은 언어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론적인 모색도 가능하리라 확신한다.

이후에는 더 많은 자료와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언어대조연구, 언어접촉이론, 수용이론과 모델 등 유용한 이론들을 활용하여 연구 주제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용중, <주자어록해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金光海,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국어학회, 1989.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 연구>, 국어학회, 2005.
 리득춘, <조선어 어휘사>, 박이정, 1996[연변대학출판사, 1897].
 민현식, <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국어학> 제25집, 1995.
 박영섭, <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1995.
 송민, <한자어에 대한 어휘사적 조명>, <국어학> 제66집, 2013.
 심재기, <國語 語義變化의 구조적 연구>, <국어연구> 11호, 1964.
 양명희, <현진건의 20세기 전반기 단편소설 어휘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
 李庸周, <韓國漢字語에 관한 研究>, 三英社, 1974.
 황신애, <한중 한자 비교를 통한 한국 한자어의 통시적 의미고찰-형태소 한자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53집, 2013.
 方一新, <中古近代漢語詞彙學>, 商務印書館, 2010.
 蔣紹愚, <漢語歷史詞彙學概要>, 商務印書館, 2015.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 2017.
 李敏辭, <朱子語類文獻學的語言研究>, 北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8.

向熹, 《簡明漢語史》, 高等教育出版社, 1993[1998].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1996[1958].

王雲路, 《中古漢語詞彙史》, 商務印書館, 2010.

<Abstract>

In the long history, Korean has been deeply influenced by Chine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research results of Chinese history and Korean history. Moreover, this work involves the internal development history of the two languages and the language contact between them. In South Korea,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language, and more on grammar. As for vocabulary, it's much worse than language and gramm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language contact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Chinese words through the process of modern Chinese words importing into Korean Chinese words. Another point is to reveal the fusion of Chinese history and Korean history and explore the next direction of development.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following contents: the processing methods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the processing methods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history research and the reference methods of Chinese history; the ways and examples of modern Chinese words into Korean Chinese characters.

Key Words : 중국어사(Chinese History), 한국어사(Korean History), 근대
중국어(Modern Chinese), 어휘(Vocabulary), 융합연구(Con-
vergence Research)

